**큰 빛, 권위를 가지신 분, 의사, 신랑, 생베 조각,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**

**12/02 월**

**마 4:16** 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,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.”

**요 8:12** 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나는 세상의 빛이니,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,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.”

**요 1:4-5**  
**4** 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,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.  
**5** 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,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.

**요 12:36** 여러분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.”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, 그들을 떠나셔서 몸을 숨기셨다.

**엡 5:8** 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,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.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.

**골 1:12-13**  
**12** 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.  
**13** 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,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.

**고후 4:6-7**  
**6** 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 
**7** 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.

**12/03 화**

**마 8:5-13 (8-10)**   
**5** 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,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아와 간구하며  
**6** “주님,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.”라고 말하였다.  
**7** 예수님께서 그에게 “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겠습니다.”라고 하시자,  
**8** 백부장이 대답하였다. “주님,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.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.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.  
**9** 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,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, 이 사람에게 ‘가거라.’라고 하면 가고, 저 사람에게 ‘오너라.’라고 하면 오고, 나의 노예에게 ‘이것을 하여라.’라고 하면 합니다.”  
**10** 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감탄하셨다.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.  
**11** 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,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칫상에 앉겠으나,  
**12** 왕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,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.”  
**13** 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“가십시오. 그대가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.”라고 하시니,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.

**12/04 수**

**마 9:11-13**  
**11** 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“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?”라고 하니,  
**12** 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. “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,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.  
**13** 여러분은 가서 ‘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’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.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,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.”

**잠 4:20-23**  
**20** 내 아들아,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.  
**21** 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여라.  
**22** 내 말들은 그것들을 찾아 얻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에 치료제가 된다.  
**23** 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.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.

**출 15:22-26**  
**22** 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. 그들은 광야를 삼 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.  
**23** 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.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.  
**24** 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. “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까?”  
**25** 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,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.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.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.  
**26** 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. “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계명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면,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.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.”

**12/05 목**

**마 9:15** 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?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,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.

**마 25:1** 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.

**빌 3:12-13**  
**12** 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,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,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.  
**13** 형제님들,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.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.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,

**창 2:4** 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의 생성은 이러하였다.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

**엡 5:25-27**  
**25** 남편 여러분,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, 아내를 사랑하십시오.  
**26** 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,  
**27** 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,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

**12/06 금**

1. **마 9:16** 또 그 누구도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데, 왜냐하면 기운 조각이 옷을 당겨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.
2. **눅 5:36** 예수님께서 다시 한 비유를 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내어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습니다. 만약 기우면 새 옷이 찢길 뿐이고, 새 옷에서 찢어 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.
3. **눅 15:22** 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‘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, 손에 반지를 끼우고, 발에 신을 신겨라.
4. **갈 3:27** 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.
5. **고전 1:30** 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,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,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.
6. **시 45:13-14**  
   **13** 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.  
   **14** 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그 여인을 뒤따르는 처녀들 곧 그 여인의 동료들도 왕께로 인도될 것입니다.
7. **계 19:8** 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,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.”
8. **렘 2:32** 처녀가 자기 장신구를, 신부가 자기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? 그런데 내 백성은 수도 없이 여러 날 동안 나를 잊어버렸다.
9. **12/07 토**
10. **마 9:17** 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. 만약 넣게 되면,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.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.”
11. **고전 12:12** 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,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,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.
12. **삿 9:12-13**  
    **12** 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소. ‘그대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나.’  
    **13** 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. ‘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,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오?’
13. **행 9:5** 그래서 그가 “주님, 누구십니까?”라고 하니, 주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.
14. **고전 1:10-13**  
    **10** 형제님들,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.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,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.  
    **11** 나의 형제님들,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으로 내가 여러분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.  
    **12** 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, 나는 아볼로에게, 나는 게바에게,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.  
    **13** 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?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?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?
15. **12/08 주일**
16. **행 26:18** 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,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,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,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.’
17. **눅 1:78-79**  
    **78** 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.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,  
    **79** 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,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.”
18. **눅 6:36** 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.
19. **애 3:22-23**  
    **22** 여호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.  
    **23** 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.
20. **말 4:2** 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,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.
21. **잠 4:18** 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.
22. **마 13:43** 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.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.
23. **찬송: 78 (英) 은혜의 주 그는 예수  (中:61)**
24. **1** 은혜의 주 그는 예수 그 이름은"나는...이다"  
    풍성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이름.
25. **4**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양인 주 예수님  
    신부 취해 연합하는 신랑이실세.
26. **7** 주는 생명 주는 참 빛 어둠 제해 죽음 삼켜  
    우릴 살려 해방하네 밝게 하시네.
27. **8** 주는 부활 주는 능력 무덤 뚫고 음부 이겨  
    우릴 강건하게 하여 승리케 하네.
28. **10** 우릴 위해 목숨 버린 우리 목자 되신 주님  
    우리 모든 질병들을 고치신 의사.
29. **11** 제사장과 왕이신 주 하나님께 이끄시네  
    우리 또한 주 권위에 참여한다네.
30. **12** 주는 소망 또한 구속 우리 모습 변케 하네  
    주 복사해 주님 자신 표현케 하네.